

“김하성, 최지만 개막전 선발 라인업에 이름 올릴 것”

2023 메이저리그(MLB)가 이달 30일 개막한다. 이런 가운데 MLB닷컴은 개막전 선발 라인업에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최지만(피츠버그 파이리츠) 등 두 명의 한국인 타자가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측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MLB닷컴은 전날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의 개막전 선발 라인업과 선발 로테이션을 점쳤다.

이 매체는 김하성을 샌디에이고 6번 타자 2루수로 예상했다.

김하성은 지난해 팀의 주전 유격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이탈 속에 유격수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2022시즌을 마친 뒤 팀이 대형 유격수 잔데 보가초를 영입하면서 빅리그 3년 차를 맞는 김하성의 포지션은 2루로 바뀌었다.



▲ 타석에 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
사진=sandiegouniontribune.com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나서려 했지만, 지난 겨울 팔꿈치 뱃조각 제거수술을 받은 점을 우려한 구단 반대로 무산됐다. 피츠버그는 같은 날 신시내티 레즈와 시즌 첫 경기를 갖는다.

한편,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 한인 투수는 없다. 토큰토 블루제이스 류현진은 왼쪽 팔꿈치 수술로 재활 중에 있어 이번 시즌 중 복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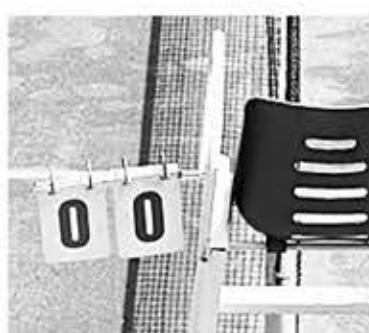
테니스는 왜 독특한 카운트 방식을 사용할까

테니스의 카운트 방식은 좀 특하다.

15일 ‘마니아타임즈’에 따르면 테니스는 각 게임에서 1점을 얻으면 이를 ‘1포인트’라고 하며 4포인트를 먼저 얻는 쪽이 1게임을 이기게 된다. 포인트를 일컫는 용어로 0점은 러브(love), 1포인트는 ‘15(fifteen)’, 2포인트는 ‘30(thirty)’, 3포인트면 ‘40(forty)’으로 구분한다.

우선 0점을 러브로 부르는 이유는 프랑스어로 계란을 뜯하는 ‘퇴프(l'oeuf)’라는 말이 영국으로 건너가 ‘러브’가 되었다는 설과 스코틀랜드어로 0을 뜯하는 ‘라프’가 역시 러브로 변형됐다는 설이 있다.

1. 2. 3. 4가 아닌 15-30-40-60의 점수체계가 적



▲ 테니스 경기장 심판석 옆의 점수판.
사진=shutterstock

용된 것은 테니스 초창기 유럽에서 점수를 기록할 때 시계를 이용한 것이 기원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1포인트마다 15분씩 시계바늘을 옮겼던 것에서 유래됐지만, 현재 테니스는 15-30-45-60의 점수체계가 아닌 15-30-40-60의 점수체계를 쓴다. 3포인트를 45가 아닌 40으로 쓰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설이 있지만 크게 45를 ‘forty five’라 부르는 것이 불편했다는 설과 심판이 드스를 고려

한 설 등이 있다. 실제로 시계바늘을 사용할 경우 드스가 되면 15-30-45-60 체계에서는 바늘이 갈 곳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15-30-40-60에서는 50을 거쳐 60으로 갈 수 있다. 드스는 두 번을 내리 이겨야 하는 만큼 60까지 두 칸이 나오는 40을 택했다는 설인 것이다.

“이강인, 대표팀 중심에 설 것”



▲ 패스한 공을 바라보고 있는 이강인.
사진=대한축구협회

대한민국과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달 24일(금) 콜롬비아와, 28일(화) 우루과이(이상 한국 시간)와 친선경기를 치른다.

이번 경기는 위르겐 클린스만(59·독일) 감독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새 감독으로 선임된 후 치루는 첫 친선경기이자 평가전으로 손흥민(토트넘), 김민재(나폴리), 이강인(마요르카), 김승규(알샤밥), 이재성(마인츠) 등 해외파 선수들도 소집된다. 이 가운데 이강인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강인은 전임 벤투 감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지 못 했다. 그럼에도 한국 축구팬들은 이강인에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기대가 크다. 더구나 위르겐 클린스만(59·독일) 신임 축구대표팀 감독이 ‘공격 축구’를 선언함에 따라 이강인의 대표팀 내 비중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클린스만 감독이 추구하는 공격적인 축구에 이강인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표팀 내 공격수들에게 번뜩이는 패스를 전달하고, 직접 상대 골문까지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돋보이는 선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비수 1~2명은 쉽게 따돌리는 개인기나 탈압박 능력 등도 대표팀 자원들 중에서 손꼽힐 정도다.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됐던 수비 가담이나 스피드 등도 완벽하게 극복했다.

한 축구 전문가는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과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제 대표팀의 중심에 서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클린스만호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30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해 드립니다.
침, 부황,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Anthem
AARP, Brand new,
Central Health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 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치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온
한의사,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